

# 리빙

## ■ 집과 사람

## 광주시 북구 청풍동 박유복씨 집

▶박유복씨의 광주시 북구 청풍동 자택. 특별한 장식물이나 빼어난 정원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풍광과 어우러지면서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다.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인 '어울림'을 담당하고 있는 큐레이터이자 ㈜인스나인 대표인 박유복(49)씨의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도심에서 벗어나 구불구불 무등산 전망대와 4수원지를 거쳐 도착한 청풍동 등촌 마을. 이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 청풍동 길과 4수원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박씨 집이 위치해 있다. 지리적 위치로만 보면 도시 생활권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교통도 불편하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는게 박씨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다.



# 안방 터 거실과 연결 '가족 화합 공간'

무등산 자락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에 4수원지가 내려다보이는 '황송한' 전망, 생활 속에서 자연의 낭만을 느끼게 해주는 점 등은 생활상의 단점을 커버하기에 충분했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입주 당시 3~4살 정도 밖에 안된 어린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뜻도 있었다.

박씨는 지난 1992년부터 빼대만 올려져 있던 집을 자신이 만족하는 공간으로 하나둘씩 단장해 나가고 있다. 화려하거나 값 나가는 거구나 장식품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전원생활을 만끽하며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서두르지 않고 짓겠다는 박씨의 장기 '플랜'은 집안 구성구석에 그대로 드러나있다.

우선 정원이 멋지다. 대지(1천276㎡)에 비해 건축 규모(292.15㎡)가 작아서일까. 광장이 넓어 보인다. 특별한 장식물이 설치된 것이 아니지만 주변 풍광과 어우러지면서 워낙 넓게 펼쳐져 집을 찾아온 손님들이 감탄할 정도다.

정원 한 칸에는 10평 남짓한 텃밭을 꾸민다고 그곳에서 재배되는 상추로 쌈을 싸 먹는다. 열무와 무, 파·고추 등 온갖 채소를 키워 가족들이 먹기에도 남는다고 한다. 정원을 감싸는 대나무와 집 앞을 차지한 오토나루, 담쟁이 덩굴 등도 주택 외형과 어울리도록 했다.

"담쟁이 덩굴은 조금 얻어와 심어주었을 뿐인데..."라면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심는다고 바빴는데 요즘엔 잘라내고 정리하느라 힘이 부친다."고 했다.

설계도 재미있다. 바닥 층고와 다른 2개의 집이 제각각 따로 떨어져 있지만 붙어있는 듯한 구조로 설계돼, 제각각 자기만의 공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1층은 안방과 거실, 부엌의 구조로 된 보통 집과 조금 다르다. 안방을 터 전실실을 마련하고 거실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이 때문에 가족 뿐만 아니라 많은 손님이라도 찾아 오면 더없이 편안한 화합 공간

### 무등산 자락 '황송한' 풍광에 반해

### 92년부터 '장기 플랜'으로 집 단장

### 2층은 아이들 학습 공간 세분화

의 역할을 한다. 전실실과 거실 한 면을 대형 유리로 마감해 두 방면에서 정원이 보이도록 했다. 거실 한 쪽의 부엌도 개방감을 높이면서 앞에 배치, 가족과 마주보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실과 전실실 바닥은 생활도자기를 하는 부인이 만든 작품으로 빼곡하다.

단순함을 좋아하지만 미미함은 싫어하는 박씨의 성격은 1층 인테



박 대표 집 내부. 1층은 안방을 전실실로 바꾸고 거실과 연결해 개방감을 높였다. 대형 그림이 내부를 장식하는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 역할을 한다.

리에서도 드러난다. 천장과 벽 한쪽은 벽지로 단순하게 마감했지만 일부는 빼대를 그대로 드러내도록 했다.

2층 설계는 그야말로 독특하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안방과 아이들 방 2개를 마주보도록 배치한 가족들의 공간이 마련됐다.

2층 아이들 방에는 환하게 트인 시야를 즐길 수 있게 넓은 창문과 베란다 공간을 넉넉하게 꾸렸고 화장실을 따로 뒀다. 높은 천장을 활용, 아이들을 위한 다락도 만들어주는 등 아이들만의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는데 꼼꼼히 신경썼다.

별채 건물에 마련된 20평 가량의 작업실은 박씨의 작품 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두루 갖춰져 있다. 직접 주문해 만든 탈곡기를 개조한 난로까지 들여와 겨울철에도 작업이 가능하다.

1층은 가족들의 화합공간, 2층은 아이들의 학습 공간과 부부의 쉼터, 별채는 작업실로 자연스럽게 세분되는 셈이다.

수직·수평 이동이 많아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박씨는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춰 지었기 때문에 잘 맞는 옷처럼 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씨는 특히 1층과 2층에 설치된 3개의 화장실에 특별히 공을 들었다. 벽에 붙인 타일에 직접 디자인하고 색깔을 입혔고 창을 크게 내 목욕하면서 바깥 풍경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아이들 방 화장실은 아예 커다란 유리창이 문 역할을 해 밖에서도 보인다. 독자적 공간이면서도 개방성을 느끼게 하는 파격이다.

박씨는 "집을 지을 때는 사는 사람의 시각이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려한 것으로 보면 고급 호텔만 하겠냐는 것이다. 그는 "가족들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공간이 집"이라며 "단시간에 똑딱 거러 짓는 것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차근차근 단장해 가는 것도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창고를 활용한 박씨의 작업실. 탈곡기를 개조한 난로로 난방이 안되는 창고의 단점을 보완했다.

50th

사랑을 만들어가는 50명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엔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참여한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귀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동맥비로, 혈산, 수크기, 병후-병후의 회복,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명화, 야맹증
-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이피,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각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하체, 뇌경동, 수축저린 수족냉증

아연의 보급

광고심의필 : 1005-0430